

폐교·대학 기숙사 '숙박시설' 전환 신촌·종로 등 모텔촌 재정비 추진

서울시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
폐교 리모델링 '유스호스텔' 짓고
연내 '캠퍼스테이' 추진안 수립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손질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확대 제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 학생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테이(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키로 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공하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테이(가칭)'도 선보인다. 시는 연내 추진안을 수립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에 나선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의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다.

또 시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돕는다. 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주로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위치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세우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노후 모텔이 밀집된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관광진흥협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손질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같은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초시청. /서울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개선 휴서울센터 확대설치 추진

**노동자 개개인 노동복지서비스
특화 노동복지 프로그램도 실시**

서울시가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복지관 공간 운영 개선과 휴서울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24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복지관 혁신으로 취약노동자 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시는 "노동자복지관 혁신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노동자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관 공간 운영을 손질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노동단체 중심에서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복지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공간 재구성 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자복지관 입주단체 선정 절차를 도입(공개모집·선정)하고, 기존 노조 사무실을 복지공간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

화된 노동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야간시간대에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시는 노동자 복지관 시설 이용료 등을 규정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용료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경우 기본 이용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6만~12만원,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은 4만~1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본 이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로 이용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다.

올 연말까지 시는 노동자복지관 지원시설을 전면 재구성하고 취약 노동자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쉼터를 확대한다. 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쉼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서초쉼터(서초구 사평대로 354) ▲북창쉼터(중구 세종대로 14길 38) ▲합정쉼터(마포구 독막로5) ▲미디어쉼터(마포구 매봉산로 37) ▲서틀쉼터(은평구 통일로 680) 총 5개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가동 중이다. /김현정 기자

내년도 교육부 R&D예산 1400억 삭감

안민석 의원 공개... 5384억→3951억
지원강화 약속 후 '삭감'... 논란 예상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

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hj@

경기도생산 농축수산물 '누구나' 20% 할인판매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할 경우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한 1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당 20%(1인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美태양광시장, 10년내 5배 성장 전망... 韓기업 진출하려면
▲ 이스라엘군 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부대에 드론공격 /사진 뉴시스

▲ 美 총기대응기구 발표 다음날... 대낮 총격으로 3명 사망
▲ 우크라이나, 러 흑해함대 사령부 공격 다음날 세바스토폴 미사일공격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2 | 해짐 / 18:26

9월 25일(월)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17~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5/25, 동두천 15/25, 가평 15/25, 파주 15/25, 서울 17/26, 양평 16/25, 인천 18/25, 수원 18/25, 용인 18/25, 백령도 18/23, 평택 17/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란-몰디브, 7년만에 외교 관계 복원 발표
▲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돌파' 전망... 연준 금리 인상 부추기나 /사진 뉴시스